

책은 어떻게 만들까요?

일리키 글·그림 | 서애경 옮김

아하,
책은 이렇게
만드는구나!



| 책은 어떻게 만들까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작가는 자기 이야기에 흥미를 더해 줄 낱말을 찾기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써야 합니다. 글이 마무리되면 편집자에게 보냅니다. 만세! 편집자는 그 글이 마음에 들면 작가에게 출판 계약서를 보내 줍니다.

그림은 누가 그릴까요? 이 책에서는 작가가 직접 그립니다. 작가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책 만드는 걸 돕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디자이너, 편집자, 제작 담당자, 색분해 담당자, 인쇄소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돕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일을 다 마치면, 최종 인쇄지가 커다란 인쇄기에서 빠져 나옵니다. 이 인쇄지로 그림책을 몇 천 부나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책 모양이 제대로 갖추어진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본소에서 접지하고, 재단하고, 실매기를 하고, 속표지에 풀을 붙이고, 겉표지도 씌워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한 권의 그림책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바로 이런 그림책이요!





나는 책을 좋아합니다.
책을 만질 때 느껴지는 촉감이 좋습니다.
책에서 나는 냄새도 좋습니다.
책장을 넘기면서 글자를 읽는 것도,
그림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원고는 컴퓨터로 입력해서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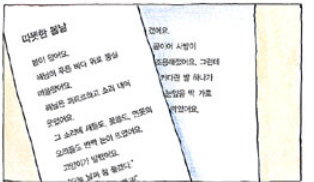
플로피 디스크

디자인이 고른
글꼴이 있는
글꼴 디스크

컴퓨터 본체에 플로피 디스크와 글꼴 디스크를 함께 넣습니다.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된 원고는 글꼴 디스크에 있는 글자문체로
바뀝니다. 이것을 인화시키려고 하는 특수한 종이에 인쇄합니다.



인화지에 인쇄된 조판지가
길게 빠져나오면 가위로 자릅니다.



다섯줄 줄임

별이 없어요.
새삼의 푸른 바다 위로 풍설
바람결이여
취침은 귀로로하고 소리 내어
웃었어요.
그 소리에 새들도 울었고, 천둥의
오르름도 반백 눈이 으르르
그런지가 말했어요
"자랑 보며 할 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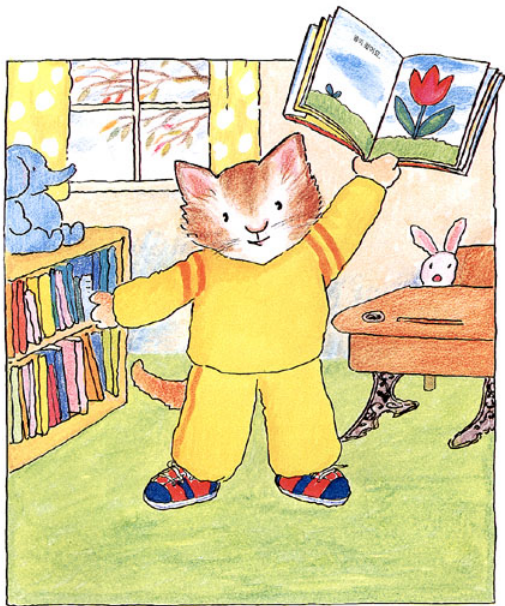
건너오.
같이 사방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기다란 발 자국이
눈앞을 막 가로
막았어요.

교열 편집지는 조판지에 원고가 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조판지 한 부는 작가에게 보냅니다.



요즘은 컴퓨터가 훨씬 좋아져서 글자만 따로 인쇄해 소판(우)을 만들기도 해요. 그러면 인쇄하면 컴퓨터로 그림과 글자가 함께 나오도록 만들어서 인쇄하기도.

이 책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작가나 화가는 “내가 만들었지.” 하고 말합니다.
 편집자, 발행인, 인쇄인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도
 “내가 만들었지.” 하고 말합니다.
 맞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었지요.
 지금부터 이 책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책 만들기는 멋진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작가는 이야기를 생각해 내서 종이에 쓰기 시작합니다.



글을 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알맞은 낱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책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마침내 글이 만족스럽게 마무리되었어요.



작가는 읽기 좋게 정리한 원고를 출판사에 우편으로 보내요.



비용소 출판사에 있는 기획 편집자가 원고를 받지요.



기획 편집자는 원고가 마음에 들었어요. 발행인도 마음에 들어했지요.
 기획 편집자는 작가에게 계약서를 보냅니다.



계약서란 작가와 출판사가 하는 약속을 적어 놓은 서류입니다. 계약서에는 출판사가 작가의 원고로 책을 만들어 판매할 권리를 얻고, 그 대가로 작가에게 인세를 준다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인세란 책이 팔린 만큼 작가가 받는 돈을 뜻합니다. 책이 많이 팔리면 팔린수록, 작가는 인세를 많이 받게 되지요.

화가도 계약서를 받습니다.
 이 책은 작가와 화가가 같은 사람이예요. 작가가 직접 그림도
 그릴 거라는 예가지요. 이때는 계약서 한 부만 있으면 돼요.



작가나 화가는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이제 작가의 일은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화가의 일이 시작됩니다.





화가는 책 크기를 정하고, 페이지마다 그럴 그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림이 한눈에 보이도록 원래 크기보다 작게 언필로 대충 그려 봅니다.



그리고 책 모양을 미리 보여 줄 수 있도록 실제 책 크기와 같게 직접 책을 만들어 봅니다. 이것을 더미라고 하지요.



진짜 책처럼 보이도록 더미에 색칠도 하고 글자도 오려 붙입니다.

회가는 더미를 편집자에게 보여 줍니다.



기획 편집자는 원고를 보고 고칠 데가 있으면 의견을 말하지요.



디자이너도 그림을 보고 의견을 말합니다.



디자이너와 회가는 글의 분위기에 맞는 글자꼴을 고릅니다.

QUESTION

Suppose that a company has a market value of \$100 million. The firm has 10 million shares outstanding. It has a debt-to-equity ratio of 0.5. What is the firm's book value per share? Assume that the firm has no preferred stock and that the debt is all in the form of bonds with a par value of \$100 million.

ANSWER

Debt-to-equity ratio = 0.5
Debt = 0.5 × \$100 million = \$50 million
Equity = \$100 million - \$50 million = \$50 million
Book value per share = \$50 million / 10 million shares = \$5

누가 이 책을 만들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작가나 화가



기획 편집자



발행인



디자이너



교열 편집자



제작 담당자



색 분해 담당자



인쇄인



공보 담당자



영업 담당자



9 785949 190181
ISBN 89-491-9018-1
www.bir.co.kr 값 8,500원